

창세기강해 13

최초의 유혹 2 (창 3:6~7)

하용조 목사/ 1998

지난 주에 우리는 창세기 3장의 말씀을 통하여 사탄이 어떻게 최초의 인간인 하와와 아담을 유혹했는지, 죄가 이 땅에 어떻게 들어왔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접근하여 유혹했습니다. 사탄의 가장 기본적인 전략은 자기를 숨기고 뱀을 대신 사용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뱀은 남자에게 접근하지 않고 여자에게 접근합니다. 사탄은 누구보다도 여러분의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뱀은 여자에게 공격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달콤하고 환상적인 언어로 유혹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언어가 사탄의 공격도구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일단 여러분이 사탄에게 걸려들면 사탄은 발톱을 내놓고 본질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나누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말씀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

오늘은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합니다. 사탄은 뱀의 모습으로 하와에게 나타나서 '참으로 하나님이 동산나무의 실과를 먹지말라고 했느냐'고 질문합니다.

결코 사탄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대적하거나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그랬느냐'고 의심하게 합니다.

사탄은 여러분이 교회에 오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도 드리지만 말씀은 듣지 못하게 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 즐기 합니다.

사탄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성경을 보더라도 성령의 감동으로 보지 말고 인간의 상식으로 보라고 종용합니다. 성경은 편집된 하나의 문서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음모입니다.

성경은 단테의 '신곡'이나 괴테의 '파우스트', 밀턴의 '실락원'과 같은 책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인간이 기록했지만 변함없는, 일정일획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접촉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깨닫고 믿을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건강이나, 물질이나, 성공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데 관심이 있습니다.

일단 인간이 유혹에 빠지면 사탄은 자기의 본모습을 드러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고 하셨지만 사탄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말합니다.

가장 큰 유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흥미케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하와를 유혹했던 그 사탄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비결중의 하나가 목사님과 싸우게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에게 나쁜 감정이 생기면 절대로 설교가 들리지 않습니다. 또한 주일에 봉사는 하도록 하는데 설교만 듣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중에 요즘 설교를 듣지 못하고 성경공부도 하지 않고 순모임에도 가지 않고 큐티에도 참석하지 않는다면 사탄에게 공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실패하면 사탄은 두 번째로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헛갈리게 합니다. 의심하게 합니다. 성경을 학문으로, 이성으로 보게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성령의 기름부으심이 있을 때 깨달아지고 달고 오묘한 말씀이 됩니다.

그래도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사탄은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하나님말씀은 모두 옳다. 그러나 듣기만 하고 행동하지 말라’고 유혹합니다. 주야로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어떤 이론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권위를 높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권위가 높아집니다.

‘ : 잘못된 비전

사탄의 두 번째 유혹은 여자에게 찾아가서 ‘너는 신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인간의 최대의 유혹은 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대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신이 되기를 원했고 흉내를 내려고 했습니다. 인간이면서도 인간이상의 존재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신이 되려고 하면 할수록 불행해질 뿐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인간이상 아무 것도 아닙니다.

5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신이 된다’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삶의 주변에서 끊임없이 신이 되라는 유혹을 받습니다. 신이 되려는 사람의 특징은 타인을 섬기려 하지 않고 다스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려 하지 않고 지배하려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은 자기 마음대로 직원을 종처럼 부리려고 합니다. 신이 되려는 유혹가운데 가장 큰 유혹은 사람을 자기의 노예로 삼고 싶어 합니다. 모든 것을 자기의 수하에 두고 자기 마음대로 부려보고 싶은 유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남을 지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지배력이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와 위치를 탐냅니다. 하지만 남을 지배하면 불행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남을 섬기면 복을 받습니다. 인간이 인간이상의 존재가 되려고 할 때 인간은 불행해집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십시오. 비록 사람을 부릴 수 있는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노예취급하거나 독재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들을 섬기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와 기쁨과 삶의 의미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오르면 밑에 있는 사람이 올라오지 못하게 하듯이,

인간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것이 싫어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했다고 말합니다. 사탄은 이렇게 교묘하게 하나님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게 하고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없게 합니다.

사탄은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독을 먹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죄와 접촉하게 되고, 죄와 접촉하면 사망이 오고, 사망이 오면 저주가 오고, 심판이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질투하고 시기해서 먹지못하게 한 것이라고 속입니다. 들어보면 그럴듯합니다. 사탄의 이야기는 항상 그럴듯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인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짐승과 같이 인간이하도 되지말아야 하지만 인간이상의 신과 같은 존재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유혹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인간이 되십시오.

선과 악을 구별할 능력이 생길 것이라는 유혹

세 번째, 사탄의 유혹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유혹은 아주 교묘합니다. 빛의 세계에서는 어둠을 의식할 필요가 없고, 생명의 세계에서는 죽음을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의 세계에서는 미움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선의 세계에서는 악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악이 들어오지 않았습다. 선 밖에 없기 때문에 선악을 구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선악을 분별할 능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면서 잘못된 환상을 갖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악을 알 필요도, 접촉할 필요도 없습니다. 죄는 알면 알수록 더 깊이 빠질 뿐입니다. 죄가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는 죄나 악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선과 생명만 알면 되고 빛과 사랑가운데 거하면 됩니다. 그러나 사탄은 미움도, 죽음도 알 필요가 있다고 유혹합니다.

선악과를 먹는 일은 가장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는 순간부터 접촉하지 않아도 될 악과 접촉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악이 접촉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거역한 것이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부터는 죄와 악이 여러분과 함께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후부터는 '이것은 악이고 이것은 선'이라고 매일 구분하면서 살게 됩니다. 이것이 지옥입니다.

지옥은 선과 악을 구분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살인과 전쟁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악과 먹는 일을 오늘 부터 중지하시고 사랑과 용서하는 일을 시작하십시오. 누구든지 용서하고 관용하고 사랑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기 부인이나 남편에게 실수가 있다할지라도 그것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관용하면 됩니다.

선악과나무는 참으로 위험한 나무입니다. 그것에는 정죄하고 부정하고 미워하고 고발하는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이 붙어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양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

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말이라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뱀이 와서 말하기 전까지는 선악과를 보아도 아무렇지 않았는데 뱀이 속삭인 순간부터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뱀에게 그 말을 듣지 않았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듣고 난 후 헛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유혹입니다. 말씀에 굳게 서십시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감정을 따라 살지 마십시오.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것이 유혹의 단계입니다. 처음에는 먹음직하고 두 번째는 보암직합니다. 세 번째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입니다. 이 유혹은 사탄이 지금도 여러분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세 가지로 시험하던 것입니다.

먹음직, , 탐스러운 유혹

선악과를 보자 하와는 ‘먹고 싶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먹는 일에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사실 먹는 일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먹는 것은 육체의 요구를 채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장 본질적인 유혹입니다.

배고프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부르다고 다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물질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만큼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물질이 있고 돈이 있다고 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만족함이 없는 것이 육체의 만족입니다. 여기에는 성적인 만족도 포함됩니다. 물질적, 육체적인 유혹이 하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다음으로 다가온 유혹은 ‘보암직’한 것입니다. 이것은 좀더 깊은 유혹입니다. ‘본다’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멋있어지고 싶어 하고 자존심을 세우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백마를 탄 왕자가 되고 싶어 하고 아름다운 공주가 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유혹과 다른 것입니다.

세 번째, 인간의 마음속에는 끊임없는 욕망이 있습니다. 선악과만 먹으면 이 세상의 모든 지혜를 다 가질수 있을 것 같고, 이세상의 모든 욕망을 모두 채울 수 있을 것 같은 충동을 느낀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영혼의 깊은 곳의 영적인 유혹입니다.

아직 죄와 접촉되지 않을 때는 이것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만일 사탄이 하와에게 다가 왔을 때 말씀으로 끊어버렸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와는 말씀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유혹의 틀을 쓰게 된 것입니다. 육체의 유혹, 정신적인 유혹, 세 번째는 영적인 유혹의 틀을 사탄은 던졌습니다. 아직까지 죄를 짓지 않았지만 이미 틀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 유혹에 대하여 요한일서 2장15, 16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좇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좇아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 단어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하와를 공격했던 사탄의 방법과 아주 유사합니다.

육체의 정욕은 곧 ‘먹음직 한 것’이고 안목의 정욕은 ‘보암직한 것’이며 이생은 자랑은 ‘지혜

롭게 할만큼 탐스러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혹에 대해서 야고보서 3장15절에서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사탄적이라'는 단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혹은 아담에게 뿐만 아니라 아담이후의 모든 인간들에게도 있습니다. 물질적 쾌락, 심리적인 쾌락, 탐욕과 영적인 욕망에 대한 유혹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하와가 실패하였던 이 세 가지 시험으로 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먼저 시험을 당하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30년 동안 사역의 준비를 마치고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물세례를 받았을 때 그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기도를 하셨습니다. 금식기도를 마치자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내몰았습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실패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유혹을 통하여 사탄을 이겨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탄을 이기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앓은병이를 고치시거나, 눈먼 자를 고쳐주거나, 귀신들린 자를 고치시는 일을 먼저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후 한 일은 사탄과 싸워 이긴 것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것은 하와에게 주었던 유혹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받은 시험

예수님은 사탄의 세 가지 유혹으로부터 승리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패배한 바로 그 유혹을 예수님은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승리하셔야만 했던 까닭은 하와가 말씀으로 실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와가 시험에서 실패한 이유는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적당하게 생각하며 마음대로 가감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된 권위로 세 번 모두 '기록하셨으되'라는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첫 번째, 돌로 떡을 만들라고 하였을 때 신명기 8장3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며 육체적이며 물질적인 유혹을 이겼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부터 말씀으로 물질적인 유혹에서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에게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가 받아줄 것'이라는 심미적이고 정서적인 유혹에 신명기 6장16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사탄은 예수님을 산으로 데리고 가서 욕망에 대하여 유혹할 때에도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먼저 말씀하시고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와가 실패한 모든 유혹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육체적 시험, 물질적 시험, 정신적 시험과 모든 영적인 시험에서 이길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시험에서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기록되었으되'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때 예수님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꼭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순종하며 사십시오.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하는 어떤 유혹도 물리치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거기를 기초로 삶을 살아나갈 때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여러분의 모든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신명기 8장에 기록된 축복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 듣는 것을 절대로 피하지 마십시오. 유혹에 빠지지 마십시오. 아침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누구든지 성경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교사가 되는 일은 가장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비전을 갖고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에게 성경을 배우는 제자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6절과 7절에서 두 가지 사탄의 속성을 배울 수 있습니다.

죄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죄는 절대로 혼자 짓지 않습니다. 마약은 혼자 하지 않고 술도 혼자 먹지 않습니다.

여자가 혼자 죄를 짓지 않고 남자에게도 짓게 만듭니다. 로마서 1장32절을 보면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죄를 지으면 눈이 밝아 죄를 본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후에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지 않고 사탄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죄를 짓고 나면 수치감이 생깁니다. 죄는 전염성이 있고 양심에 부끄러움과 인격의 부끄러움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나무를 뜯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무화과나무로 가린다고 해서 부끄러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의 문제는 여러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해결됩니다.

*** 출처 : 온누리신문**